

[1956-11-05, 에버렛 스완슨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 특별 편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호세아 14:3)

작년에 여러분 중 많은 분이 한국에 있는 고아들에게 선물을 보내지 못하셨지만,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옷과 사탕, 학용품, 장난감 등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액의 돈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한 보육원 원장은 “그날 어린이들이 기뻐서 펄쩍 뛰었고, 미국에 있는 그들의 '엄마'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저와 우리 어린이들은 여러분과 어린이들의 미국 “부모님”, 즉 후원자와 기부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벌써 이에 대한 문의 편지가 오고 있으며,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전달해 주신 후원금을 '환'(한국 통화)으로 환전하여 선교사와 보육원 원장에게 전달하는 데 약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들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동봉된 회신용 봉투에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 헌금”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헌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4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너무도 적지만, 모든 것에 매우 감사해합니다.

이 봉투에 넣은 여러분의 수표 또는 우편환은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분실한 적은 없지만 분실의 위험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또 원하시는 만큼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긍휼함(compassion)과 너그러움의 정신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다지 부족함이 없는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돈을 쓰곤 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분과 여러분의 종이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Page 2 간증 번역 생략)